긴급점검 위기의 광주시립예술단

투자·인력확충… 작품 질 높여야

하 활성화 대책은

강력한 오디션 제도 도입으로 단원 경쟁력 제고를

전문가 영입·사무국 도입·법인화 포함 장기발전안 모색

광주시가 운영하는 시립예술단체는 교향악단 등 모두 7개로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다. 하지만 작품 수준과 단원들의 실력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각종 잡음이 불거지면서 혈세 낭비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걸맞는 시립예술단체의 브랜드화는 광주가 풀어야할 숙제다.

우선 광주시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선행되어야한다.

올해 4년만에 봉급이 인상된 예술단체 단원들의 대우는 열악하다. 시립예술단 설립이 타 지역에 비해 수십년이 늦은 울산을 제외하면 광역시중 최하위다.

대졸 초임(3호봉)은 연봉 2270만원으로 최하위며 가장 높은 액수를 받는 대전의 2700만원에 비해 500만원이 적다. 대졸 13년차의 경우도 3300만원으로 5개 광역시 중 꼴찌, 대졸 28년차의 경우는 4000만원으로 4위다. 특히 대졸 초임 수준이 낮아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인력 확충도 시급하다. 무용단의 경우 조례상 정원은 70명, 예산상 정원은 50명이지만 현 단원은 38명에 불과하다. 부산(46명), 인천(47명), 대전(46명)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질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한 공연 예산 역시 확대되야 한다. 지난해 7개 예술단체의 공연 예산은 17억원에 불과했다. 극단이 5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무용단(3억1000만원)과 교향악단(3억600만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비슷한 인구 규모로 교향악단, 무용단, 합창단, 국악관현악단 등 4개 단체를 운영하는 대전의 경우 전체 예산은 107억원이었으며 이중 공연 예산은 25억으로 교향악단(7억1000만원), 무용단(5억3000만원) 순이었다.

■시립예술단체 단원 현황

(2013년 1월 현재/단위:명)

	광주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교향악단	87	97	91	107	104	88
무용단	38	47	46	33	46	45
합창단	48	62	61	60	56	55
극단	6	29	-	14	20	-
국악단	-	-	-	74	-	-
국악 관현악단	49	-	-	-	70	-
국극단	48	-	-	-	-	-
소년소녀(청소년) 합창단	70	-	66	70	80	39
청소년 교향악단	-	-	-	-	64	47

■광역시 시립예술단 연봉 비교표

(단위:천원)

	3호봉(대졸초임)	15호봉(대졸13년차)	30호봉(대졸28년차)
광주	22,718	33,472	40,684
부산	24,693	34,117	40,705
대구	25,477	34,699	40,581
인천	27,022	38,346	45,350
대전	27,299	37,973	45,237
울산	20,350	32,186	38,842

시의 재정 자립도 등을 감안할 때 모든 단체에게 다양한 지원책이 돌아가는 건 어렵다. 한해 예산이 인건비 포함해 125억원에 불과한 상황을 감안하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중점 지원하는 '전략 단체'를 선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또 시립예술단 전체를 관할하는 문예회관의 운영 조직이 예술분야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다 보니 운영에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점도 개선되어야한다. 문예회관 수장의 전문가 영입 등과 단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사무국 도입 등이 필요하다.

시립예술단체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술감독과 단원들의 실력이고, 그 결과물은 '작품'으로 나온다.

예술감독 선임을 둘러싼 시의 무책임한 행태를 둘러싼 비난들도 있지만 최근 예술단체 문제가 터지면서 단원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각들도 많다. 나태한 연습태도와 형식적인 오디션을 통한 '제밥그릇 챙기기', 자신들 입맛에 맞는 예술감독 길들이기 등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다. 또 시립예술단 노조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지역문화예술계에서는 '합리적인 오디션 시스템'을 전제로 상시평가제를 포함한 강력한 오디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하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걸맞는 시립예술단체를 키우게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법인화를 포함한 시립예술단체의 다양한 운영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지난 2011년 5월 진행된 토론회 등에서 중장기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책임자가 바뀌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었다. 〈끝〉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걸맞게 시립예술단체를 브랜드화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립교향악단 연주 모습.

번역자 정기수·이형식에 듣는 '레 미제라블'

혁명이 주는 감동… 새로운 시대를 여는 메시지

영화 '레미제라블'의 인기를 업고 원작소설의 판매도 대박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민음사와 펭귄클래식코리아는 불과 두어 달 만에 각각 10만부와 5만부의 판매고를 올렸다.

단기간의 외국 고전 판매로는 이례적일 만큼 '레미제라블'의 인기는 거세다. 민음사의 번역자 정기수(85) 전 공주대 불문과 교수와 펭귄클래식코리아의 번역자 이형식(67) 서울대 불어교육과 명예교수에게 소설 '레미제라블'의 인기요인을 들었다.

▲정기수 전 공주대 교수=소설과 영화를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다. 2편에 장발장이 나온다. 전과자이자 죄수였던 장발장이 미리엘 주교의 감화를 받아 통과의례 과정을 거친다. 전진과 후퇴를 통해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장발장이 자신때문에 종신형을 받을 운명에 몰린 사람으로 인해 마침내 시장직을 던지고 장발장임을 밝힌다. 무고한 사람을 위해 벌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하는 장면은 압권이다.

빅토르 위고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인공으로 장발장을 내세웠다. 1815년은 나폴레옹이 엘바섬을 탈출하고 장발장은 수감생활을 마치고 석방되는 해다. 이때를 기점으로 나폴레옹은 백일천하로 사라지고 장발장이 등장한다. 운명이 표리를 이루는 절묘한 구성이다.

▲이형식 서울대 명예교수=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은 자베르 형사가 시장이 된 장발장에게 시장이 범인이라고 경시청에 보고한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다. 장발장은 하던 일이나 잘하라고 하고 밖으로 걸어나간다. 그때의 그 발자국 소리는 정말 담담하고 투명하다. 자베르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경찰이다. 음지에서 일하지만 공화체제를 유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한다.

미리엘 주교나 장발장은 공화체제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해가 될 수도 있는 인물이이다. 공화주의자였던 위고가 자베르라는 인물을 어떤 의미로 부각했는지 독자들이 꼭 느꼈으면 한다.

국내에서는 이 작품이 마치 불쌍한 사람을 대변하는 소설인 것처럼, 위고가 기독교적인 작가인 것처럼 알려졌다. 이것은 저희 불문학자들의 책임이다. 이 부분을 제대로 소개하려고 노력했다. /연합뉴스

목요상설무대 공연작 공모

문화재단, 25일까지 접수

작은 무대로 큰 감동을 주는 광주문화재단 목요상설무대 공연이 올해도 계속된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25일까지 2013년 목요상설무대에 참가할 기획공연작품을 공모한다.

목요상설무대는 광주문화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을 활용해 2011년부터 시작된 기획프로그램이다. 국악, 연극, 음악, 무용, 뮤지컬 갈라, 오페라 갈라 등 다양한 장르의 소규모 공연이 가능하다.

선정된 작품에는 공연장 무료대관, 장비·기계·시설 운용인력 및 안내 도우미, 홍보물 제작 등이 지원된다.

3월 마지막 주부터 11월 셋째 주까지 총 20회에 걸쳐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신청서식은 광주문화재단(http://www.gjcf.or.kr), 빛고을시민문화관(http://bitculture.gjcf.or.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당선작은 2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문의 062-670-7913.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화선지에 펼쳐진 아름다운 제주

김금남 개인전, 31일까지 고흥 도화헌미술관

오름 밭에 피어나는 유채꽃, 돌담길 사이로 보이는 우도, 푸른 바다 옆에 외롭게 선 작은 등대.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이 붓과 화선지로 다시 살아난다.

진도 출신의 한국화가 김금남씨가 오는 31일까지 고흥 도화헌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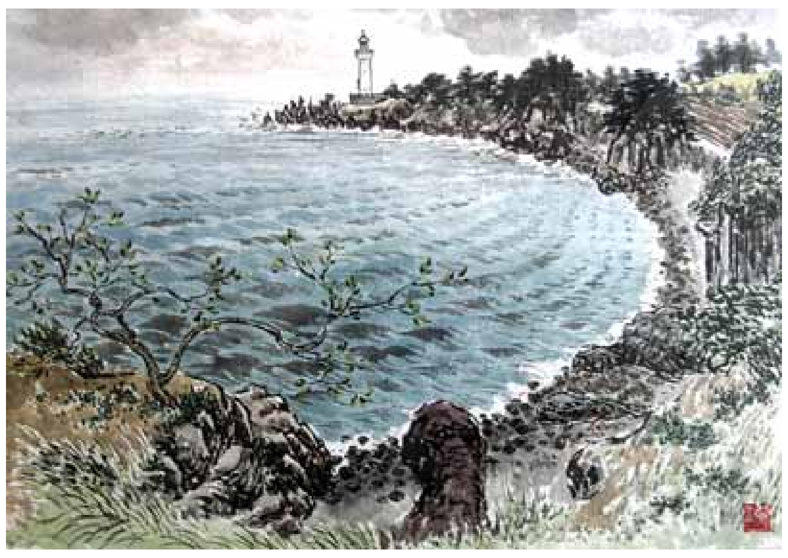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진경산수 30여점이 전시된다. 김씨는 풍경 앞에서 그림을 완성하는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라는 신념으로 지난 5년간 제주도에 머물면서 풍경을 화선지에 옮겨 담았다.

"그림 길을 따라 화행(畵行)을 행하는 게 진정한 작가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 그의 말이다.

김씨는 목포대에서 한국화를 공부했으며 10차례의 개인전을 갖은바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예례등대'